

한·일 혼인담 비교 - '혼례 날 죽을 운명'을 둘러싼 민담과 민속*

김 난 주**

국문초록

본고는 '혼례 날 죽을 운명'을 모티프로 한 한·일 민담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국의 혼례 민속, 그리고 혼인에 대한 양국 민중의 인식과 심리를 비교 고찰한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는, 한국에서는 '혼례 날의 호환'형 민담을, 일본 쪽에서는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을 선택하였다. 혼례 날에 죽음을 경고하는 서사는 민중들이 혼례라는 통과 의례 혹은 혼인에 대해 느끼는 공포와 불안의 심리를 반영한다. 또한, 혼인담에 나타난 이러한 죽음의 모티프는 실제 혼례의식이 장례와 유사한 의식을 거치며 상징적 죽음을 재연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혼례에서 죽음의 의식을 통과한 남녀가 아내와 남편이라는 자아로 새로 태어나듯, '혼례 날 죽을 운명' 이야기 속 신랑 신부는 죽음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손에 넣는다. 이러한 공통점과 보편성 이외에 '혼례 날 죽을 운명'의 한·일 혼인담은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과 특수성을 드러낸다. 본고에서는 첫째, 신랑 신부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 요소의 차이, 둘째, 죽을 운명에 처한 주체, 셋째, 누가 신랑 신부를 죽을 운명에서 구해 내는가의 관점에서 한·일 혼인담의 차이를 도출하고 그 문화적 배경과 의미를 논하였다.

[주제어] 한·일 민담 비교, 혼인담, 혼례, 신랑 신부, 혼례 날의 죽음, 혼례 날의 호환, 통과 의례, 죽음과 재생

목 차

- | | |
|---------------------------------|--------------------------|
| I. 들어가며 | IV. 혼례 날의 죽음을 둘러싼 민속과 민담 |
| II. 일본,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의 양상과 특징 | V. 나가며 |
| III. 한국, '혼례 날의 호환(虎患)'형 민담의 양상 | |

I. 들어가며

본고의 목적은 한·일 혼인담 중에서도 특히 '혼례 날 죽을 운명'을 소재로 한 민담을 분석하고, 이들 민담

* 이 연구는 2023학년도 단국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

** 단국대학교 자유교양대학 연구전담 조교수 / nanju21@hanmail.net

에 나타난 혼례 민속 내지 혼인에 대한 인식을 비교 탐색하는 데 있다.

세계의 수많은 민담은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인생의 그 어떤 단계보다도 많이, 중요하게 다루어 왔다. 주인공 남녀가 갖가지 시련과 장애를 극복하고 행복한 결혼을 쟁취하는 이야기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드라마는 없을 것이다. 어린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동화는 저주에 걸린 왕자와 공주가 운명의 배필을 만나 장애를 극복하고 결혼에 성공하는 이야기들이다. 동화 속 결혼은 마치 고난에 찬 인생의 최종적이며 궁극의 보상처럼 이야기되며, 이때 결혼식 장면은 주인공들의 행복한 결혼생활을 보증하는 가장 확실한 표상이 된다. 먹음직스런 음식과 종소리, 하객들의 축복이 넘치는 결혼식 장면에서 우리는 주인공들이 그 후로도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하지만 어떤 결혼 이야기에서 혼례식은 또 다른 고난의 시작편이며 죽음의 공포가 만연하기도 한다. 특히 한국 민담의 경우 혼례 날 신랑 신부의 죽음을 다룬 이야기가 놀라울 정도로 많다. 혼례 첫날밤에 살기죽이 벗겨져 죽은 신부, 첫날밤에 목 잘린 신랑, 누명 쓰고 원귀가 된 신부, 간부에게 살해당할 뻔한 신랑, 혼례 날 호랑이에게 물려간 신랑 신부의 이야기가 각각의 유형을 이루며 전승되고 있다. 한편, 일본 민담에도 ‘혼례 날 죽을 운명’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는데, ‘혼례 날의 죽음(婚禮の日の死)’형 민담이 그것이다.

동서양의 많은 민담은 주인공이 고난을 극복한 뒤 행복한 결혼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이때 혼례식은 인생 최고의 보상이자 최대의 경사가 된다. 그런데 왜 어떤 이야기들은 이 경사스런 혼례 날에 죽음을 경고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혼인과 혼례에 대한 민중들의 특별한 심리가 내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혼례 날 죽을 운명’을 소재로 한 한·일 민담을 비교 분석하고, 아울러 혼례 민속에 내재된 죽음의 요소를 고찰하여 혼인과 혼례에 대한 양국 민중의 심리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는, 한국에서는 ‘혼례 날의 호환’형 민담이, 일본 쪽에서는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이 중심이 될 것이다.

이제까지 선행연구를 검토해 볼 때, 본고에서 다룬 ‘혼례 날 죽을 운명’을 모티프로 한 민담을 한·일 양국에서 본격적으로 고찰한 사례는 과문한 탓인지 찾아보기 힘들었다. 단지 한국 쪽에서는 혼례 첫날밤 신랑 신부의 죽음을 소재로 한 민담 유형을 개별적으로 고찰한 사례들이 있는데, 주로 민담의 서사구조 및 갈등 양상의 분석, 통과의례로서의 첫날밤의 상징성, 남성성, 혹은 여성인식이라는 젠더적 접근에 집중되어 있다.¹⁾ 또 본고에서 한국 쪽 자료로 다룬 ‘혼례 날의 호환’형 민담에 대해서는 대개 ‘운명설화’ 혹은 ‘호랑이 설화’의 하위유형으로 분류하여 언급한 정도로,²⁾ 본고와 같이 혼인담의 범주에서 혼례와 죽음의 상관관계를 조명한

1) 김영권, 「첫날밤 신랑 피살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한국문화논총』 44, 한국문화회, 2006, 189~218쪽; 김영희, 「남성 주체의 결핍과 상실을 대리 표상하는 ‘사그라진 신부(新婦)-〈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이야기를 중심으로 -」,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285~334쪽; 한유진, 「첫날밤 목 잘린 신랑과 누명 쓴 신부」 유형 설화에 나타난 갈등 구조와 전승 체계, 『한국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학회, 2013, 147~173쪽; 김영희·김시연, 「첫날밤」의 의례적 상징성과 ‘남성성’ 승인의 불안-〈첫날밤에 간부(姦夫) 잡은 남자〉 이야기를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66, 2018, 7~79쪽.

2) 이 중 정재민은 『한국 운명설화 연구』에서 호환운(虎患運)을 타고난 남성이 혼인을 통해 액을 물리치는 내용의 구비설화를 ‘호환설화’의 하위유형인 ‘혼인도액형(婚嫁度厄型)’으로 분류하여 고찰한 바 있다(정재민, 『한국 운명설화 연구』, 제이앤씨, 2009, 158~183쪽). 하지만 본고에서 다룬 ‘혼례 날의 호환’ 설화는 고찰대상에서 빠져 있고, 연구 방향도 ‘운명설화’에 초점

것은 아니다. 한편, 한·일 민담의 비교연구는 주로 이류혼인담, 계모설화 유형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가 축적되었고, 또 민담 각편끼리의 비교 연구도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역시 ‘혼례 날 죽을 운명’을 소재로 한 민담의 비교연구는 시도된 적이 없다.

본 연구를 통해 한·일 양국의 혼례민속 및 혼인담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피고, 아울러 양국 민중의 혼인에 대한 인식과 심리를 이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으로 한·일 민담의 비교 연구를 위해 한국 자료는 『한국구비문학대계』(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0~1992)와 구비문학대계 디지털 자료(한국학중앙연구원³⁾를, 일본 자료로는 『일본석화대성(日本昔話大成)』(関 敬吾, 角川書店, 1983)을 이용하였음을 밝혀 둔다.

II. 일본,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의 양상과 특징

일본 민담을 집대성한 『일본석화대성(日本昔話大成)』(초판 1979년, 이하 『대성』으로 약칭)은, 일본 전역에 전승되고 있는 민담을 채록하고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친 민속학자 세키 게이고(関 敬吾)가 엮어낸 것이다. 총 12권으로 구성된 이 자료집에서는 일본 민담을 크게 동물민담, 본격민담(本格民譚), 소화(笑話)로 구분했는데, 이 중 본격민담의 맨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바로 혼인담이다. 또 혼인담은 ① 혼인·이류신랑(異類聳), ② 혼인·이류부인(異類女房) ③ 혼인·인간끼리의 혼인 및 ‘난제를 풀어 신랑 되기(難題聳)’가 차례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배열과 민담 각편의 숫자를 종합해 볼 때, 일본 민담에서 차지하는 혼인담의 중요성, 그리고 혼인담의 주류가 ‘이류혼’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한국 민담과 비교할 때 일본 혼인담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혼례(식)와 관련한 민담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대성』의 본격민담 항목에서 확인된, 혼례 날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뿐이다. 이는 한국 민담에 혼례 날과 관련된 여러 유형의 민담이 상당수 전해지는 것과 대조를 이룬다.⁴⁾

세키 게이고의 『대성』 7권에 본격신화형(本格新話型) 25번, ‘혼례 날의 죽음’형으로 분류된 이들 이야기는 〈운명 점지 이야기(運定め話)〉라는 제목으로 총5화가 수록되었다.⁵⁾ 채록 장소는 규슈(九州)의 가고시마현(鹿児島県) 오시마군(大島郡)의 기카이지마(喜界島)와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일대이다. 한정적인 지역분포 및 수록된 유희(類話) 수를 볼 때, 이 이야기는 일본 혼인담의 주류형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격 민담에 실려 있는 혼인담 중 유일하게 혼례 날을 소재로 한 민담이 하필 혼례 날의 죽음을 경고하고 있다는 것은

을 맞춘 것으로, 본고와 같은 ‘혼례와 죽음’의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김현희는 〈첫날밤 호식 막은 이야기〉를 호랑이와 인간이 공존하는 ‘호인공존형’ 호랑이 설화로 분류하고, ‘첫날밤에 대한 공포와 불안이 호랑이로 나타난다’고 해석한 바 있다(김현희, 「공포와 불안심리를 통해 본 호랑이 설화의 유형과 의미」,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150쪽).

3) 『한국구비문학대계』의 디지털 원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https://gubi.aks.ac.kr/>)와,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http://yoksa.aks.ac.kr/>)를 이용하였다. 디지털 원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제보자, 각편 제목, 채록지, 채록연도 순으로 표기하였다.

4) 한국 혼례설화와 관련하여 홍순래는 『한국구비문학대계』에서 혼례절차가 나타나는 이야기를 총 456편으로 집계하였으며, 이 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첫날밤 관련 이야기임을 지적하였다. 홍순래, 「혼례절차에 따른 한국 혼례설화의 유형에 대한 전승집단의 의식 연구」, 신라대학교 석사논문, 2007, 5-26쪽.

5) 関 敬吾, 『大成』 7, 東京: 角川書店, 1983, 292-294쪽.

흥미로운 일이다. 또한 ‘혼례 날 죽을 운명’이라는 동일한 모티프의 민담이 한국에도 존재하고 있으니, 양국 혼인담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탐색하고 양국 민중의 결혼관을 비교 고찰하는 데는 유용한 소재라 사료된다.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은 한마디로 혼례 날 죽을 운명을 타고난 신부가 아버지 덕에 죽음을 면하고 시집 가서 잘살았다는 이야기이다. 각편의 공통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한 사내가 낚시를 나갔다가(소철 열매를 사러 나갔다가) 운명신이 아기의 운명을 점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된다.
2. 여아가 태어났는데, 요메이리(嫁入)⁶⁾ 날 바위 밑(거대한 나무의 동공, 동굴, 솥가마)에서 비를 피하다가 바위(나무, 동굴, 솥가마)에 깔려 죽을 운명을 점지했다는 것이다.
3. 사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딸을 낳았다.
4. 딸이 시집가는 날 사내가 동행했는데, 갑자기 비가 왔다.
5. 신부가 비를 피하기 위해 바위 밑(거목의 동공, 동굴, 솥가마)에 들어가려는 것을 사내가 끌고 나왔다.
6. 혼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에 보니 그 바위(나무, 동굴, 솥가마)가 무너져 있었다.
7. 딸은 목숨을 구하고 잘 살았다.

이중에서 서사구조와 내용이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는 기카이시마(喜界島)의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한 사내가 새벽에 낚시하러 나갔다가 해 뜨기를 기다리며 나무토막을 베고 잠이 들었다. 잠결에 이야기 소리를 들었는데, 이제 곧 사데쿠 마을(佐手久村)에 아이가 태어나니 운명을 점지해 주러 가자는 것이었다. 그러자 다른 한 목소리가 지금 이 사내가 나를 베고 누운 탓에 움직일 수 없으니 혼자 다녀 오라고 말했다. 얼마가 지나 아까 나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여자 아이가 태어났는데, 18살이 되어 시집가는 날 바위 밑에서 비를 피하다가 바위가 무너져 죽게 될 운명이다. 이 액운을 피하면 곳간마다 재물을 쌓아두고 잘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사내가 집에 돌아와 보니 아내가 딸을 출산했다. 사내는 새벽에 들은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딸이 시집가는 전날 밤 사내는 미리 도롱이를 만들어 두고, 다음 날 딸의 요메이리 행렬에 동행했다. 맑은 날씨에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신부가 바위 밑에 들어가 비를 피하려 하자, 사내는 딸을 붙잡아 도롱이를 씌우고 빗속을 걸어 곧장 신랑 집으로 갔다. 혼례를 마치고 신부와 동행했던 일행이 돌아오는데, 전날 비를 피하려던 바위가 무너져 있었다. 딸은 아버지 덕에 죽음을 피하고 시집에서 부자가 되어 잘 살았다.⁷⁾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은 혼례 날에 죽을 운명을 타고난 여성이 운명의 비밀을 엿들은 아버지의 조력으

6) 일본의 혼례는 한국과 달리 신랑 집에서 치른다. ‘요메이리’란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부가 친정집을 떠나 신랑 집으로 가는 절차를 말한다.

7) 『大成』 7, 292~293쪽.

로 단명할 운명에서 벗어난 내용이다. 또한 『대성』에 이들 민담의 제목이 〈운명 점지 이야기〉로 일괄되어 있는 점을 보더라도 이 이야기는 ‘운명설화’의 범주에 속하며, 민속학적으로는 산신(産神)신앙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참고로 산신신앙을 바탕으로 한 일본 운명설화의 대표적 유형에는 ‘산신문답(産神問答)’형 민담이 있다. 『대성』 3권에 ‘운명과 치부’라는 중항목으로 분류된 이들 이야기는, 대체로 산신이 아기가 태어나는 집에 찾아가 운명을 점지해 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의 오사마군 민담에서 보듯 일본의 운명신은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등장한다는 데 특색이 있다. 이는 〈숲속의 잠자는 미녀〉에서처럼 세계 민담에 등장하는 많은 운명신들이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뒤에서 살펴볼 한국 민담 역시 대개는 아기가 태어나 몇 년이 지난 유년기에 운명이 예고된다.⁸⁾ 일본 운명신의 이러한 출현 방식은 통칭 ‘우부가미(産神)’라 불리는 이 신의 성격과 관련이 깊다. 즉, 이 신의 본래 직능은 산신(産神)이라는 한자 표기에서 드러나듯 출산의 현장에 나타나 아기가 무사히 태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이 신이 출산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산모는 난산을 겪게 된다. 또, 일본 민속에서 산신의 형상과 성격은 다종다양하다. 앞서 본 기카이시마의 민담에서는 나무토막의 형상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유화에서는 구체적인 형상은 언급하지 않은 채 요괴(妖怪) 또는 신령님(神様)이라 명명되기도 한다.

수명과 관련한 운명설화의 결말은 두 가지이다. 타고난 운명대로 단명하거나, 타고난 운명을 거스르고 장수를 누리는 것이다. ‘산신문답’형 민담을 예로 들자면, 자신의 자식이 몇 살이 되면 물에 빠져, 혹은 뱀에 물려 죽을 운명이라는 산신의 말을 엿들은 아버지가 아이를 살리려 애쓰지만 결국 단명한다는 내용, 또 반대로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장수와 부를 누린다는 내용이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혼례 날의 죽음’형 이야기의 딸들은 모두 단명할 운명에서 벗어나 장수했으니 후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민담의 특이한 점은 죽을 운명이 혼례 날, 그 중에서도 신부에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 속 아이들은 왜 하필 혼례 날에 죽을 운명을 점지 받는 것일까? 그리고 그 죽음의 그림자는 왜 모두 딸, 즉 신부에게만 드리워진 것일까? 이 문제와 관련해 세키 게이코가 수록 민담 끝에 덧붙인 다음의 해설은 주목할 만하다. “이 이야기는 혼례를 치르기 위해 신랑 집에 가던 신부가 바위가 무너져 죽을 운명을 타고나는 이야기이다. 결혼은 탄생과 죽음에 이은 중대한 사건이다. 특히 여성에게는 더욱 그러하다.”⁹⁾

민속사회에서 결혼은 개인의 부푼 기대와 공동체의 축복 속에 치러지는 경사(慶事)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령으로부터 공격받기 쉬운 불길한 사건으로도 인식되었다. 따라서 결혼하는 신랑 신부는 경사스런 존재이면서 동시에 위험한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신랑보다는 “신부가 더 위험에 빠지기 쉬울 뿐 아니라 주위를 위험에 빠뜨리는 불길한 존재”¹⁰⁾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이 때문인지 전 세계의 혼례의식에 관한 보고를 보면 악령을 쫓기 위한 주술의식이 신부에게, 특히나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도중 혹은 신랑 집으로 들어갈 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¹¹⁾

8) 한국의 운명설화에서 단명운을 예언하는 것은 신(神)이나 마녀가 아닌 중, 도사 같은 불교계 인물인 경우가 많다.

9) 『大成』 7, 294쪽.

10) Edward Westermarck(저), 정동호·신영호(역), 『인류혼인사』, 세창출판사, 2013, 237쪽.

참고로 한국 전통혼례에서도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갈 때 여러 가지 주술 의례들이 거행되었다. 예를 들면, 신부를 가마에 태우고 행차한다든지 가마 위에 호피를 덮거나 짚방석을 까는 것은 귀신의 눈을 피하고 귀신으로부터의 위협을 위아래로 막기 위한 주술행위였다.¹²⁾ 또 신부의 가마가 신랑 집에 이르면 문 앞에 짚불을 피우고 밥과 찬을 올린 상 앞에서 무녀가 경을 외기도 했는데, 이 역시 신부에게 붙어 있을지 모르는 귀신이 신랑 집에 따라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방책이라고 한다.¹³⁾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신부가 혼례를 올리기 위해 신랑 집으로 갈 때 관솔불이나 제등(提燈)을 밝히고, 신랑 측에서도 불을 들고 나가 신부 일행을 맞이했다고 한다. 이는 불의 힘을 빌려 신부에게 붙어 있을지 모르는 악귀를 쫓기 위한 주술행위이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신부가 타고 가는 가마에 지푸라기, 남천, 삼실, 인두, 다시마 등을 넣어가는 풍속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길 위의 악령을 쫓아준다고 한다. 이밖에 신부에게 쓰개옷이나 모자를 씌우고 천으로 입을 가리는 등의 풍속도 일본 전역에서 행해졌는데, 이는 신부의 모습을 감춰 악령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믿어졌다.¹⁴⁾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에서 하나같이 요메이리의 순간에 신부의 죽음이 예언되는 것은 이상과 같이 혼례 날, 특히 요메이리 길에 갖가지 재앙이 신부를 위협한다는 민속신앙과 관련이 있다 하겠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지적해 두고 싶은 것은,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에서 죽을 운명에 처한 신부를 구하는 인물이 모두 ‘아버지’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기카이지마의 전승담을 예로 들자면, 딸의 운명을 엿듣게 된 아버지는 비밀을 혼자 간직한다. 그리고 딸의 혼례 전날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도롱이를 준비하고, 혼례 예법에 맞지 않게 시집가는 딸을 따라가 결정적 순간에 딸을 구해낸다. 주도면밀한 아버지의 방책으로 딸은 죽음을 피하고 무사히 혼례를 치른 후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살게 되는 것이다.

혼인을 주제로 한 서양 민담의 경우 저주에 걸린 여성을 구해내는 것은 대개 배우자가 될 남성이다. 또 뒷장에서 살펴 볼 한국 민담에도 혼례 날 신부를 구원하는 데 아버지가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이에 비해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에는 운명의 비밀을 엿들은 자, 그 운명에서 신부를 구원하는 존재는 모두 ‘아버지’이다. 이처럼 혼례 날 신부의 운명 서사에서 신랑이 완전히 배제되고, ‘아버지와 딸의 결합’이 더욱 공고하게 나타나는 것이 일본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시집가는 딸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불안과 함께 가부장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엿보인다.

Ⅲ. 한국, ‘혼례 날의 호환(虎患)’형 민담의 양상

앞서 살펴본 일본의 민담이 혼례 날 바위나 큰 나무에 깔려 죽을 뻔한 신부의 이야기라면, 한국 민담에서

11) 혼례 날 거행되는 예방과 정화의식에 대해서는, Edward Westermarck, 위의 책, 237~261쪽 참조 바람.

12)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속의 세계』 2, 2001, 148쪽.

13) 박혜인,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124쪽.

14) 일본 혼례의 주술습속에 대해서는 江守五夫, 『呪術的婚姻儀禮の民族学的意義』, 『日本の婚姻, その歴史と民俗』, 東京: 弘文堂 1989, 189~215쪽 참조.

혼례 날 엄습하는 대표적인 횡액에는 호환(虎患)이 있다. 예부터 호랑이의 대표적 서식지였던 한반도는 특히 호랑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많았고, 민담의 전승자들은 일상에서 겪은 이러한 체험을 수많은 이야기로 풀어내고 전승시켜 온 것이다.¹⁵⁾ 사전적 의미로 ‘호환’은 사람이나 가축이 호랑이에게 당하는 재앙을 뜻하는데, 민담에서는 주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재앙이라는 의미에서 호식(虎食)이라고 불렸다. 민중사회에서 호환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했다. 즉, “호식은 아무나 당하는 것이 아니고 호식 당하는 집안은 따로 있다”¹⁶⁾는 것이다. ‘호식당할 팔자’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초자연적인 공포이자 그 자체로 죽음을 의미하기도 했다.

한국 민담에는 호환의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모종의 방책을 통해 운명에서 벗어난다는 유형의 이야기가 일군을 이루고 있고,¹⁷⁾ 또 반대로 타고난 호환의 운명을 피하지 못한 이야기도 많다. 그렇다면 혼례 날에 호환 당한 신랑 신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본장에서는 ‘혼례 날의 호환’을 모티프로 한 이야기 유형을 통해, 혼례와 죽음의 양상이 한국 민담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앞서 본 일본 민담에서 ‘혼례 날 죽을 운명’을 타고난 주체는 모두 신부였다. 그에 비해 한국 민담에서 혼례 날의 호환은 신랑 신부 양쪽에 모두 일어나지만, 호환을 당한 주체에 따라 서사 구조와 내용에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이하, ‘혼례 날 호환당한 신랑’과 ‘혼례 날 호환당한 신부’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혼례 날 호환당한 신랑

‘혼례 날 호환당한 신랑’ 이야기의 경우 각편의 숫자는 많지 않지만 분포지역이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등 전국에 걸쳐 있다. 『대계』에 실린 각편은 다음과 같다.

번호	각편 제목	채록장소	제보자	채록일	구원 주체
1	호랑이 물리친 신부	경기여주	추홍천(여)	1979	신부
2	호랑이 쫓은 신부	충남아산	유중손(남)	1981	신부
3	첫날밤 호식된 이야기	경남거창	이시균(남)	1980	신랑 자신
4	첫날밤에 호식당함	경남밀양	손미현(여)	1981	신랑 자신
5	꿈으로 맺은 인연	전남고흥	유인에(여)	1983	신랑 자신
6	백호살을 면한 신랑	전남해남	김형국(남)	1984	택일(擇日)

15) 여타 동물담 중에서도 호랑이는 한국 민담에 가장 압도적인 비율로 등장하는 동물이다. 최원오, 「동물담 연구를 통한 민족 동물학 내지는 동물문화학의 가능성」, 『인간동물문화』, 이담, 2012, 130-131쪽.

16) 최은남, 〈호식당하는 팔자〉, 전남 여주시, 2011. <https://gubi.aks.ac.kr/>(검색일 : 2023.8.20).

17) 정재민은 이를 ‘운명설화’ 중에서도 ‘호환도액설화(虎患度厄說話)’라고 명명하고, 호환의 퇴치 방식에 따라 칠성감응형(七星感應型), 고행도액형(苦行度厄型), 혼인도액형(婚姻度厄型), 울목도액형(栗木度厄型), 독경도액형(讀經度厄型)으로 분류하였다. 정재민의 분류에 따르면 본장에서 다룬 ‘혼례 날의 호환’형 민담은 ‘혼인도액형’에 해당하는데, 정재민이 고찰한 민담 자료 11건 중에는 본장에서 고찰한 ‘혼례 날의 호환’형 이야기가 누락되었다. 〈호환도액설화〉에 대해서는 정재민, 『한국 운명설화 연구』, 앞의 책, 146-177쪽.

‘혼례 날 호환당한 신랑’ 이야기의 핵심 서사는 혼례 날에 호랑이에게 물려간 신랑이 죽을 위기를 모면하고 잘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야기 속 신랑들은 모두 어떠한 계기를 통해 혼례 날 죽을 운명에서 벗어나는데, 호환으로부터 누가 신랑을 구하느냐에 따라 이야기의 구조와 내용이 크게 달라진다. 호환의 운명에서 신랑을 구한 주체(요인)는 다음의 3가지로 나뉜다.

- (가) 호환당한 신랑을 신부가 구하기 : 자료 1, 2
- (나) 신랑이 자력으로 호환운에서 벗어나기 : 자료 3, 4, 5
- (다) 택일로 호환운 면하기 : 자료 6

먼저, ‘택일로 호환운 면하기’ 유형의 〈백호살을 면한 신랑〉 이야기부터 살펴보자. 어사 박문수가 호랑이가 초행길의 신랑을 따라가는 것을 목격한다. 따라가 보니 호랑이가 신랑을 해치려 시도하지만 끝내 해치지 못하고 물러났다. 박문수가 날을 꼬아보니 그 날이 옥당황도(玉堂黃道)가 든 날이었다.¹⁸⁾ 이 이야기에서 혼례 날 호환으로부터 신랑을 구해 준 것은 황도가 든 혼례 날, 즉 택일의 힘이었다. 앞서도 살펴보았듯이 혼례 날은 경사스런 날이면서 반대로 불행이 일어나기도 쉬운 날로 여겨졌다. 때문에 전통사회에서는 택일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였는데, 조상의 제삿날, 농번기, 삼복이 낀 달과 한 해의 마지막 달은 피하고 길일에 날을 잡는 것이 상례였다.¹⁹⁾ 참고로 황도일(黃道日)이란 민간신앙에서 좋지 않은 흉살을 제거하는 힘을 가진 길일이다. 이처럼 〈백호살을 면한 신랑〉 이야기는 혼례와 관련한 여러 절차 중에서도 특히 택일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있다.

다음, (가)의 〈호랑이 물리친 신부〉와 〈호랑이 쫓은 신부〉는 혼례 날 호랑이에게 물려간 신랑을 신부가 구해내는 이야기이다. 공통 서사단락을 중심으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집간 첫날밤에 신랑이 똥을 누러 나갔다.
2. 호랑이가 신랑을 물고 갔다.
3. 신부가 쫓아가 호랑이를 물리쳤다. 호랑이가 죽었다(도망갔다).
4. 신부가 신랑을 업고 돌아와 잘 살았다.

이 민담에서 신부는 신랑을 물고 가는 호랑이 꼬리를 붙잡기도 하고, 깊은 산속까지 쫓아가 호랑이와 대치하는 대범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또 〈호랑이 쫓은 신부〉에서는 신부가 신랑에게 닥칠 호환을 현몽을 통해 예견하는 비범함을 보인다. 두 이야기에서 호랑이는 커다란 원삼을 입고 족두리를 쓴 신부의 모습에 놀라 지레 도망가거나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또한 호랑이를 물리친 신부는 신랑을 업고 마을로 내려오는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신랑이 아직 어리기 때문이다. 한국 민담에 등장하는 신랑 유형에는 이렇게 신부보다 한

18) 〈백호살을 면한 신랑〉의 원문은 <https://gubi.aks.ac.kr/>(검색일 : 2023.8.20).

19)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 민속의 세계』 2, 2001, 137~138쪽.

참 어린 미성년의 꼬마신랑이 많이 등장한다.

한편, (나)의 세 편은 신랑이 자력으로 호환운명에서 빠져 나오는 이야기이다. 이 중 경상남도 거창군에 전하는 <첫날밤 호식된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에 비해 서사가 길고 복잡한데,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남성이 풍수사에게 부친의 못자리를 부탁하러 갔다. 풍수사가 점지한 곳은 삼정승 육판서가 날 명당이지만 대신 부친 삼우제 날 장가를 들어야 하고, 첫날밤에 호환을 당하는 못자리였다. 남자는 풍수사의 말에 따라 부친의 삼우제 날 서둘러 신붓감을 구했다. 첫날밤에 신부가 이 밤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며 신랑에게 옷을 지어 입혔다. 호랑이가 신랑을 물고 가 산속에 내려놓았다. 신랑이 나무꼭대기로 도망가고 이를 잡으려던 호랑이가 나뭇가지에 걸렸다. 남자가 자신을 놓아주는 조건으로 호랑이를 구해주었다. 남자는 고향에 돌아가지 않고 어떤 마을에 정착해 살다가 세월이 흐른 뒤 고향을 찾아갔다. 첫날밤에 헤어진 신부가 세쌍둥이를 낳았는데 모두 정승이 되어 있었다. 남성은 신부가 지어준 옷을 보며 여주며 자신이 호랑이에게 물려간 신랑임을 입증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았다.²⁰⁾

이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대대손손 부귀영화를 보장해 줄 명당을 얻기 위해 스스로 호환의 운명을 선택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 운명에서 벗어났다. 그런 점에서 (나)와 (다)에서처럼 완전히 타력에 의해 운명을 회피한 유형과는 다르다. 하지만 남성이 명당을 얻는 조건으로 ‘혼례’가 제시되었다는 점, 또 여성이 남성의 호식된 운명을 알고도 혼인을 수락했다는 점, 삼정승의 아버지라는 지위를 공인받는 데 신부와 그녀가 지어준 옷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 등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남성이 호환의 운명을 극복하고 부귀영화를 획득한 배후에는 혼례와 여성의 역할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자력으로 호랑이를 물리친 나머지 두 예화에서도 발견된다. 전남 고흥군의 <꿈으로 맺은 인연>에서는 신랑이 집안의 반대를 극복하고 호환당한 집안의 여성과 혼례를 치르고, 또 격투 끝에 호랑이를 잡는 등 신랑의 활약상이 적극적으로 그려진다. 하지만 남성이 집안을 설득하고 혼례를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신부가 꾸민 꿈 때문이었는데, 그 꿈은 신랑 신부가 하늘이 정해 준 천생배필, 즉 백년해로할 운명임을 암시하는 내용이었다. 말하자면 신랑은 여성과의 혼례로 호환을 당하지만,²¹⁾ 천생배필인 신부를 만났기에 결국은 호환운에서 벗어나 잘살 수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경남 밀양의 <첫날밤에 호식당함> 이야기에서 도사가 호환운이 있는 소년에게 반드시 스무 살에 장가를 가야 한다고 방책을 제시한 것 역시 호환운의 탈피에 혼례가 모종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상 살펴본듯듯이, ‘혼례 날 호환당한 신랑’ 민담에서 호랑이를 물리치고 신랑을 구해내는 것은 용기 있고 비범한 재주를 지닌 신부였다. 또 신랑이 자력으로 호환운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도 운명을 극복하고 잘 살게 된 이면에 혼례와 신부의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신랑들이 호환을 당하는 것은 모두 혼례 날이지만 역으로 단명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역시 혼례를 통해서였다. 이들 민담에서는

20) 이시균, <첫날밤 호식된 이야기>, 경남 거창, 1980, [https://gubi.aks.ac.kr/\(검색일 : 2023.8.20\)](https://gubi.aks.ac.kr/(검색일 : 2023.8.20)).

21) 한국 민속에서는 호환을 당한 집안과 혼인하면 호환을 당한다는 속신이 있다.

혼례가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는 위험한 통과 의례이지만, 반대로 호환과 같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기회 역시 혼례를 통해 잡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혼인과 호환을 둘러싼 이러한 상관관계는 다음의 민담에서 더 명확해진다.

혼례 날을 배경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 민담에는 호환으로 단명할 운을 타고난 남성이 비범한 여성을 만나 호환운을 모면한다는 이야기가 일군을 형성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재민은 이 민담형을 ‘호환도 액설화’ 중의 ‘혼인도액형’이라 명명하고, 11편의 민담 목록을 제시하였다.²²⁾ 이들 민담에서 소년이 호환운을 모면하기 위해 제시된 방책은 바로 삼정승 집 딸이나 공주 같은 고귀한 여성과의 혼인이다. 당연히 이러한 고귀한 여성과의 혼인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민담에서는 무일푼으로 집을 나와 유리결식하는 등, 여성을 탐색하기 위한 고난이 이어진다. 그리고 결국 고귀한 여성을 만나 동침에 성공하고 호환의 운명에서 탈출하게 되는 것이다. 이때 남성을 호환운에서 구한 여성은 가문의 고귀함 외에도 그녀 자신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면한 부마〉에서 공주는 경문을 외어 호랑이를 쫓아냈고, 〈삼정승 딸 얻은 총각〉에서는 주역을 읽었으며, 〈호식 면하고 김정승 사위된 이야기〉에서는 축지문 책을 읽어 호랑이를 물리친다.

〈삼정승의 딸을 얻은 단명소년〉 이야기에서 정승집 세 딸들은 난데없이 침입한 남성에게 동침을 허락한다. 이 인연으로 남성은 세 여인을 한꺼번에 아내로 맞은 후, 과거에 급제해 부귀영화를 누리며 잘 살게 된다. 그야말로 민담 세계에서나 가능한 판타지이다. 이러한 판타지는 세계의 수많은 동화에서 현실의 궁벽한 처지를 돌파하고 신분상승과 부귀공명을 안겨다주는 행운의 열쇠로 결혼을 동원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 그런데 〈신데렐라〉, 〈백설공주〉 같은 세계의 유명 민담들이 주로 여성 판타지를 대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호환과 관련한 한국 혼인담은 결혼을 통해 인생 역전을 꿈꾸는 남성 판타지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인다.²³⁾

2. 혼례 날 호환당한 신부

앞서 보았듯이, 혼례 날 호환당한 신랑들은 특별한 능력을 지닌 신부에 의해 구원을 받는다. 그렇다면 ‘혼례 날 호환당한 신부’의 운명은 어떻게 전개될까? 『대계』에서 이 소재를 다루고 있는 이야기를 일람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 22)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수록된 ‘혼인도액형’ 민담은 다음과 같다. 이흥권, 〈삼정승의 딸을 얻은 단명소년〉, 서울 도봉구, 1979; 민봉호, 〈호환 면한 정승 아들〉, 강원 충성군(춘천시), 1980; 이동균, 〈처녀 얻고 과거 급제한 과부 아들〉, 강원 양양군, 1981; 김환기, 〈두 정승 딸 얻은 총각〉, 충남 보령군, 1981; 방철수, 〈삼정승 딸 얻은 총각〉, 전북 정읍군, 1985; 선수모, 〈호식(虎食)할 팔자를 고친 사람〉, 전남 승주군, 1984; 길용이, 〈세 번 장가들어 호성 면한 도령〉, 경북 상주군, 1981; 성양자, 〈호랑이 화를 면한 부마〉, 경남 거창군, 1980; 박옥천, 〈호식 면하고 김정승 사위된 이야기〉, 경남 거창군, 1980; 이귀조, 〈뱀대로 잡은 호랑이〉, 경남 밀양군, 1981. 이상은 정재민, 『한국 운명설화 연구』, 앞의 책, 158쪽.
- 23) 이러한 경향은 한국의 다른 혼인담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전주회는 한국의 ‘사위관련 설화’를 분석하며, “우리나라 사위설화에서 형편이 좋은 집에 장가들기 위해 거짓말을 잘하거나 피를 내어야 하는 자격시험을 보는 이야기가 많은데 비해, 부잣집이나 정승집에 시집가려고 노력하는 며느리의 이야기는 찾기 어렵다. 이는 통과 의례로서 혼인 자체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 더 긍정적인 보상이 됨을 보여 준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희, 「사위 관련 설화 연구-사위와 처가의 관계, 이야기의 통과 의례적 성격을 중심으로-」, 『구비문학연구』 58, 한국구비문학회, 2020, 284~285쪽.

번호	각편 제목	채록장소	제보자	채록일	구원 주체
1	역학자 백구룡	서울도봉	강성도(남)	1979	백구룡 제자
2	호환을 막아 준 검암의 제자	충북단양	홍상기(남)	1981	검암 제자
3	첫날밤에 호식당한 색시	경북구미	박규섭(남)	1984	이웃총각
4	고안경 이야기	전남회순	장봉춘(남)	1984	서경덕 제자
5	신부를 잡아먹으려는 호랑이를 물리친 정일도 선생	경남산청	김시분(여)	2012	정일도
6	결혼 첫날밤에 호환당한 신부	경기구리	곽정자(여)	2014	포수

이 중 경북 구미시에 전하는 〈첫날밤에 호식당한 색시〉를 통해 혼례 날 호환당한 신부의 운명을 살펴보고
록 하자.

과년한 처녀가 시집을 가게 되었다. 이웃에 힘 센 총각이 남의집살이를 하다 아버지 제삿날이라 말
미를 얻어 집에 가게 되었다. 산 고개를 넘는데 처녀 앞에서 호랑이가 으르렁 거리고 있는 것을 목격하
였다. 총각이 호랑이를 때려눕히고 기절한 신부를 업고 자기 집으로 갔다. 신부가 첫날밤 호랑이에게
물려 간 사연을 들려주었다. 신부 집에서 신부를 찾으러 왔다. 고을 원님이 첫 신랑을 버리고 호환에서
구해 준 총각과 살라고 했다. 총각과 결혼해서 잘 살았다.²⁴⁾

한국 민담에서 첫날밤은 신랑 신부에게 위태로운 시간이다. 호환은 신랑뿐 아니라 신부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데,²⁵⁾ 위 예화에서 보듯 혼례 날 호환을 당한 신부들은 신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환으로부터 구
원되고 해피엔딩을 맞는다. 그런데 혼례 날 호환당한 신부 이야기가 신랑의 그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호환으로부터 누가 신부를 구원했는가’의 문제이다. 앞서 보았듯 혼례 날 호환당한 신랑
을 구원한 것은 대개 신부이거나 신랑 자신이다. 그리고 신랑 스스로가 자신을 구한 경우에도 그 배후에 신
부의 역할이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렇다면 혼례 날 호랑이에게 물려간 신부를 구한 것은 용감한 신랑일까? 애석하게도 호환으로부터 신부
를 구한 것은 신랑이 아니라 모두 제3의 남성들이다. 그들은 검암, 서경덕, 백구룡 같은 역사적 위인의 제자
이거나 정일도 같은 이인(異人)이다. 전자의 경우 제자들은 스승으로부터 신부의 호환운을 예고 받고 신부를
구하러 나서는데, 주역이나, 경문, 술법과 같은 이인적인 능력을 구사해 호랑이를 퇴치한다. 덕분에 신부는
호환을 면하고 혼인을 유지한다. 또한 우연히 호환 장면을 목격한 이웃집 총각, 지나가던 포수가 신부를 구
하기도 한다. 그런데 이 경우 신부는 혼례를 치른 신랑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위 예화에서 보듯 자신을 구해
준 남성을 새로운 배필로 맞이하는 것이다. 이는 다른 남성에게 신체 접촉을 허락한 신부가 신랑에게 돌아가

24) 박규섭, 〈첫날밤에 호식당한 색시〉, 경북 구미, 1984, <https://gubi.aks.ac.kr/>(검색일 : 2023.8.20).

25) 이때 재앙은 주로 첫날밤 소변보러 나간 사이에 일어난다. 경북 구리시의 〈결혼 첫날밤에 호환당한 신부〉에서는 첫날밤 신
방에 요강을 넣어주는 것은 호환으로부터 신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한다.

기 힘든, 전통사회의 과도한 정절관념이 반영된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신부를 구하지 못한 신랑은 자격을 박탈당하고, 용감한 남성이 행복한 혼인을 쟁취할 수 있다는 전승주체들의 심리가 함께 엮여있다.

앞서 ‘혼례날 호환 당한 신랑’ 이야기에서 신부들이 호환으로부터 신랑을 구해내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그런데 왜 신부를 구해내는 신랑은 찾기 어려운 것일까? 한국 혼인담에 나타난 이러한 양상은 혼례를 통해 운명을 변역하고 보다 좋은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여성들의 기대가 남성의 그것에 비해 현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결혼에 대한 여성주체들의 인식이 엮보이는 대목이다.

IV. 혼례 날의 죽음을 둘러싼 민속과 민담

인생의 가장 경사스럽고 축복을 누려야 할 혼례 날의 신랑 신부에게 죽음을 경고하는 민담에는 분명 혼례에 대한 공포와 불안의 심리가 엮여있다. 그러한 공포와 불안은 삶의 한 경계를 넘어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당사자들에게는 어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다. 말하자면, 혼례가 초래할 새로운 삶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민담에서는 혼례 날 호랑이에게 물려가고, 바위에 깔려 죽는 환상으로 표상된 것이다.

한편, 한국과 일본의 혼례절차에서 행해지는 여러 의식이 장례의 그것과 매우 유사하다는 민속학적 보고는, 혼례 이야기 속 죽음의 모티프를 이해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듯하다. 예를 들어 일본 혼례의 경우, 요메이리를 위해 친정집을 떠날 때 신부가 자신이 사용하던 밥그릇을 깨뜨리거나 현관이 아닌 뒷마루를 이용하는 데, 이러한 풍습은 장례식의 출관(出官) 모습과 같다. 또 아이치현(愛知県) 지역에서는 신부가 집을 떠날 때 ‘기타한조(北半豊)’²⁶⁾라 불리는 명석 위에 앉아 양친에게 인사를 올리는 풍속이 있는데, 이 명석은 장례식에서 관을 안치할 때도 사용된다. 사람들은 이러한 의식을 ‘신부가 죽은 사람처럼 시집 흙이 되어 다시는 친정에 돌아오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²⁷⁾ 이러한 인식은 표면적으로는 시집 식구와 남편에게 전적으로 충실할 것을 요구하는 가부장제의 혼인관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 심층에는 신부를 죽은 사람과 동일시하는 관념이 깔려 있는데, 이는 가부장제의 혼인관과는 다른 층위의 문제이다. 신부와 사자(死者)의 유사성은 신부의 혼례 복장에서도 드러난다. 예를 들어, 일본 전통 혼례에서 신부 예복으로 이용되는 흰색의 ‘시로무쿠(白無垢)’는 장례 때 사자에게 입히는 흰색의 수의와 흡사하다. 말하자면 신부는 흰색의 수의를 입고 시집을 가는 셈이다. 또 신부의 머리 위에 쓰는 쓰노카쿠시(角隠し) 역시 장례 때 사자(死者)의 머리에 씌워주는 삼각형의 수건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한다. 즉, 신부가 쓰노카쿠시를 뒤집어쓰으로써 위로부터 내려오는 악령을 방지하는 것처럼, 사자 역시 신부와 마찬가지로 다른 혼이 올라타기 쉬운 존재이기 때문에 머리에

26) ‘기타한조’는 신부가 반으로 접은 명석 위에서 부모님이 계시는 북쪽을 향해 인사를 올렸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라고 한다.

27) 이상 신부의 출가(家出) 의례와 장례의 유사성에 대해서는, 道前 美佐緒・鈴木 知恵子, 「愛知県の婚礼風習嫁の立出について」, 『名古屋文化短期大学紀要』 41, 2016, 1쪽.

무언가를 씩씩 악령을 막았다는 것이다.²⁸⁾

한국의 전통 혼례에서도 상례의 그것과 비슷한 점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신부가 친정을 떠나 시집으로 향할 때 부엌에 가서 솔뚜껑을 세 번 들었다 놔다 하며 조왕신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는 풍습은, 상례에서 관을 낼 때 안방에서 세 번 들었다 놓았다 하며 성주신에게 인사를 하는 것과 흡사하다. 또한 한국에서도 일본 혼례와 마찬가지로 신부가 친정을 떠나며 밥그릇을 깨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출관할 때 바가지를 깨는 의식과 비슷한 점이다. 한편, 한국의 혼례와 장례 때 동심결이라는 매듭을 공통적으로 사용하는데, 동심결은 “삶의 단계를 매듭짓는 의미를 지닌다. 혼례의 경우 신부는 친정집에서의 삶을 매듭짓고 새로운 가정으로 새 출발을 하는 것이고, 장례 때 죽은 자는 이승의 삶을 매듭짓고 죽음의 세계로 출발하는 것이다.”²⁹⁾

이렇게 혼례 의식이 장례의 그것과 유사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 에모리 이쓰오(江守五夫)는, 혼례습속에 의사재생(擬死再生)의 관념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며, 또한 혼례를 장례로 위장시킴으로써 혼례식에 찾아오는 악령의 눈을 속이고 신랑 신부를 보호하려는 주술적인 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해석했다.³⁰⁾ 주지하다시피 ‘의사재생’이란 의례적·상징적 죽음과 뒤이어 일어나는 탄생(재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어제까지의 내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내가 태어날 수 있다는 관념이다. 성인식, 혼례, 장례와 같은 “통과의례는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종교적·사회적 의식으로, 여기에서 때때로 죽음과 부활이 연극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³¹⁾ 통과의를 거친 사람은 죽음을 통과해 되살아난, 새로운 존재로 간주된다.

통과의례에 내재되어 있는 상징적 죽음과 재생의 원리를 ‘혼례 날 죽을 운명’ 민담에 투영해 보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일본의 ‘혼례 날의 죽음’형 민담에서 요메이리 길의 신부들이 바위 밑이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한국 민담에서 신랑 신부가 호랑이에게 물려가 기절하는 것은 모두 일시적인 죽음을 체험하는 것이라 이해할 수 있다. 또 신랑 신부가 동굴과 호랑이에서 벗어나는 구조는 죽음에서 재생으로의 과정을 상징한다. 이러한 죽음과 재생의 과정을 거침으로써 신랑 신부는 혼례를 완수하고 행복한 삶을 손에 넣게 되는 것이다. 혼례라는 통과의를 거친 후 죽음의 의식을 수행해야 혼례가 완성되듯이, 민담세계에서 행복한 삶은 죽을 역경을 겪은 자만이 얻을 수 있다. 바위가 무너져 깔려 죽을 액운을 통과한 신부가 곳간 일곱에 재물을 가득 채우는 복을 누리고, 호랑이에게 물려갈 운명을 받아들인 신랑이 삼정승의 자손을 두고 대대손손 잘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혼례 의식에서 상징적 죽음의 모티프가 신부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은 혼례와 동시에 생가를 떠나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신부에게 삶의 변화가 더 강렬하게 일어나는 현실을 반영한다. 일본 민담에서 혼례 날 죽음의 예고가 신부에게 집중되는 것은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겠다.

28) 이에 대해서는 小野寺 綾, 「婚姻儀禮における擬死再生のモチーフ—徳島県那賀郡木頭村の事例より」, 『徳島地域文化研究』 2, 徳島地域文化研究会, 2004, 51~52쪽.

29) 한국 혼례에 나타난 장례적 요소 및 동심결에 대해서는 이연숙, 「절리와 통합으로 본 통과의례의 공통성과 그 의미 - 혼례와 장례를 중심으로」, 『새얼어문집』 16, 새얼어문학회, 2004, 141~153쪽.

30) 江守五夫, 「婚禮の際の悪霊と呪術的習俗—日本婚禮儀禮論ノート」(1), 『書齋の窓』 317, 東京: 有斐閣, 1982, 37~43쪽.

31) 통과의례의 의사재생적 요소에 대해서는, 아놀드 반 게펠(저), 전경수(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257~260쪽.

그렇다면 한국의 '혼례 날 죽을 운명'형 민담에서 신랑의 죽음이 많이 언급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전통사회의 조혼풍속이 될 것이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한국 민담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신랑 유형은 미성년의 꼬마 신랑이다. 전통 사회에서는 후손을 일찍 보기 위해 신체적으로 미성숙한 소년기의 남아를 일찍 장가들이는 풍습이 만연했다. 이 경우 신랑은 대개 6~7세, 신부는 그보다 많은 열 살 중후반이 많았다고 한다. 혼례 날 호랑이에게 물러가는 신랑의 서사는 혼례에 대한 어린 신랑의 불안이 투사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신부가 호랑이를 물리치고 신랑을 업고 내려오는 설정은 조혼으로 인한 신랑 신부의 역전된 힘의 관계를 은유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V. 나가며

이상 한·일 혼인담에서 혼례 날 죽을 운명을 타고난 신랑 신부의 이야기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모두 혼례라는 통과의례를 완수하기 위해 생사의 기로에 놓인다. 가장 경사스럽고 축복 속에 지나야 할 혼례 날에 죽음의 공포가 엄습하는 서사는 혼례 혹은 혼인에 대한 민중들의 심리와 인식을 반영한다. 그것은 기쁨과 기대보다는 바위에 깔려죽거나 호랑이에게 물러가는 것에 비견되는 공포와 불안의 심리이다. 또한 혼례 이야기에 등장하는 죽음의 모티프는 혼례의식에서 재연되는 죽음의 의식과 일맥상통한다. 하지만 죽음의 의식을 통과한 남녀가 혼례를 완수하고 부부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탄생하듯, 민담 속 신랑 신부는 죽음을 극복하고 행복한 삶을 손에 넣는다. 여기까지는 혼례 날 죽을 운명을 소재로 한 한·일 민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양상이다.

하지만 양국 민담에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이 발견되는데, 이것이 바로 양국의 혼례습속과 혼인담의 특성, 아울러 혼례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 요소의 차이이다. 일본 민담에서 신부는 바위, 거목, 동굴에 압사할 위기에 처하는데, 한국의 민담에서는 호랑이에게 물러가는 재앙이 압도적으로 많다. 혼례 날 죽을 위험이 '호환'으로 상징되는 것은 한국 민담에서 호랑이가 차지하는 위상 때문이다. 한국에서 호랑이는 산신으로 추앙받기도 하며 압도적이고 불가사의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이다. 혼례 날 엄습하는 불가해한 운명이 '호환'으로 표상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죽을 운명에 처한 주체가 누구인가의 문제이다. 일본 민담에서 혼례 날 죽을 운명은 모두 신부에게 부가되며, 죽음의 위협은 요메이리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전세계 혼인의 민속에서 신랑보다는 신부를 더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고 특히 신부가 신랑 집으로 가는 도중, 혹은 신랑 집으로 들어갈 때 주술적 행위가 집중되는 것과 맥을 같이 한다. 그에 반해 한국 민담의 경우 혼례 날 죽을 위기는 신랑과 신부 모두에게 찾아온다. 이는 신부 못지않게 신랑 역시 혼례에 대한 불안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는 한국의 조혼 풍속으로 인해 소년기에 혼례를 치르는 어린 신랑의 사정이 반영되어 있다.

셋째, 누가 신랑 신부를 죽을 운명에서 구해 내는가이다. 일본 민담의 경우, 모든 예화에서 신부를 구하는 것은 아버지이며 아버지의 서사가 중심이 된다. 이는 분리되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집단적 불안을 표상하는 것이면서 가부장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으로도 해석된다. 한국 민담의 경우, 혼례 날 호환당한 신랑을 구원한 것은 신부이거나 또 신랑 자력으로 호환에서 벗어난 경우에도 그 배후에 신부의 조력이 작용한다. 이에 반해 호환당한 신부를 구하는 것은 언제나 제3의 남성들이다. 한국 민담에 나타난 이러한 양상은 혼례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기대 차이를 반영하는 것처럼 보인다.

〈참고문헌〉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구비문학대계』, 1980~1992.
- 한국학중앙연구원, 『구비문학대계』 디지털아카이브. <https://gubi.aks.ac.kr/>
- 한국학 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 関 敬吾, 『日本昔話大成』, 東京: 角川書店, 1983.
-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한국민속의 세계』 2, 2001.
- 김영권, 「첫날밤 신랑 피살담의 서사적 양상과 의미」, 『한국문학논총』 44, 한국문학회, 2006.
- 김영희, 「남성 주체의 결핍과 상실을 대리 표상하는 ‘사그라진 신부(新婦) - 〈첫날밤에 소박맞은 신부〉 이야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 2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1.
- 김영희 · 김시연, 「첫날밤의 의례적 상징성과 ‘남성성’ 승인의 불안 - 〈첫날밤에 간부(姦夫) 잡은 남자〉 이야기」, 『비교민속학』 66, 2018.
- 김현희, 「공포와 불안심리를 통해 본 호랑이 설화의 유형과 의미」,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3.
- 박혜인, 『한국의 전통혼례 연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88.
- Anold Van Genneep(저), 전경수(역), 『통과의례』, 을유문화사, 1985.
- Edward Westermarck(저), 정동호 · 신영호(역), 『인류혼인사』, 세창출판사, 2013.
- 전주희, 「사위 관련 설화 연구 - 사위와 처가의 관계, 이야기의 통과의례적 성격을 중심으로 -」, 『구비문학연구』 58, 한국구비문학회, 2020.
- 정재민, 『한국 운명설화 연구』, 제이앤씨, 2009.
- 최원오, 「동물담 연구를 통한 민족동물학 내지는 동물문화학의 가능성」, 『인간동물문화』, 이담, 2012.
- 한유진, 「첫날밤 목 잘린 신랑과 누명 쓴 신부’ 유형 설화에 나타난 갈등 구조와 전승 체계」, 『한국구비문학연구』 37, 한국구비문학회, 2013.
- 홍순래, 「혼례절차에 따른 한국 혼례설화의 유형에 대한 전승집단의 의식 연구」, 신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7.
- 江守五夫, 「婚礼の際の悪霊と呪術的習俗-日本婚礼儀禮論ノート」(1), 『書齋の窓』 317, 東京: 有斐閣, 1982.
- 江守五夫, 『日本の婚姻, その歴史と民俗』, 東京: 弘文堂, 1989.
- 小野寺綾, 「婚姻儀禮における擬死再生のモチーフ-徳島県那賀郡木頭村の事例より」, 『徳島地域文化研究』 2, 徳島地域文化研究会, 2004.
- 道前美佐緒 · 鈴木知恵子, 「愛知県の婚礼風習嫁の成立について」, 『名古屋文化短期大学紀要』 41, 2016.

* 이 논문은 2023년 8월 31일에 투고되어,
2023년 9월 13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0월 3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0월 7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Marriage Tales between Korea and Japan

- Folk tales and Folklore Surrounding 'the Fate of Death on the wedding day'

Kim, Nanju*

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aspects of Korean and Japanese folk tales based on the motif of "the Fate of Death on the Wedding Day". Through this analysis, we compared and examined the perceptions and psychology of the two countries' populations regarding wedding customs and marriage. Specifically, the paper focuses on the Korean folk tales of "disasters caused by tigers on the wedding day" type and the Japanese folk tales of "death on the wedding day" type as the subjects. Narratives warning of death on the wedding day reflect the fears and anxieties that people feel about the rite of passage of wedding or marriage. Moreover, the motif of death found in marriage tales aligns with the fact that wedding ceremonies undergo rituals similar to funerals, and these wedding rituals also serve as a symbolic reenactment of death. Just as individuals transition through the consciousness of death during wedding ceremonies to emerge as new identity as husband and wife, the groom and bride in the stories of "the Fate of Death on the Wedding Day" overcome death and grasp a happy life. Beyond these shared themes and universality, the Korean and Japanese marriage tales featuring 'the Fate of Death on the Wedding Day' motif also shows several significant differences and uniqueness. In this paper, we explore: firstly, the differences in the elements leading the groom and bride towards their untimely demise; secondly, the subject who is destined to die; and thirdly, who rescues the groom and bride from this destiny. We draw out differences in the context of Korean and Japanese marriage tales, discussing their cultural backgrounds and significance.

[Keywords] comparison of Korean and Japanese folk tales, marriage tale, marriage, bride and groom, death on the wedding day, disasters caused by tigers on the wedding day, rite of passage, death and rebirth

* Dankook Univ. Assistant Professor for Research